

Yi Song Mi, *Recording State Rites in Words and Images: Uigwe of Joseon Korea*

(Princeton: Princeton University Press, 2024)

박정혜*



『글과 그림으로 국가 의례를 기록하다: 조선시대 의궤』는 저자 이성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지난 30여 년 동안 천착해 온 조선시대 의궤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결정판이다. 미술사 분야에서 의궤 연구의 선구자인 저자는 2014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당 센터에서 개최한 강좌 시리즈에서 다섯 차례의 강의 및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의궤를 집중적으로 강의했으며 이 책은 그 강좌를 토대로 저술한 결과물이다.

깔끔하고 가독성 높은 편집, 질 좋은 도판, 품위 있는 장정이 돋보이는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 있다. 1부에서는 길(吉)·가(嘉)·빈(賓)·군(軍)·

흉(凶)의 오례(五禮)에 따른 대표적인 의궤를 소개했다. 저자는 많은 의궤 중에서 오례 각각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의궤를 선별하고 거기에 수록된 도식, 도설, 반차도 등의 특징을 통해 시각적 자료로서 의궤의 독자적인 면모를 분명하게 밝혔다. 의궤 반차도만의 독특한 형식미를

*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

규명하고 어람 반차도의 우수성과 분상 반차도의 차이점도 상세하게 비교하였다.

2부는 오례에 포함하기는 어렵지만, 조선시대 의궤 제작의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궤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부분이다. 저자는 어진의 제작에서 봉안까지 그 전모를 수록한 어진(御眞) 관련 의궤를 통해 조선시대 어진의 제작 과정, 상징성과 함의를 부각했다. 또 저자는 18세기 후반의 가장 진보한 회화 양식이 고스란히 담긴 두 의궤, 즉 정조의 현릉원 행차를 기록한 『원행을묘정리의궤(園幸乙卯整理儀軌)』와 화성 축조를 기록한 『화성성역의궤(華城城役儀軌)』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. 두 의궤를 통해 저자는 조선시대 의궤가 보수적이고 형식적인 문헌에 머무르지 않으며 18세기 후반 화원들의 회화적 역량이 얼마나 우수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명쾌하게 규명해 주었다.

3부에서는 의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미술사적 핵심 정보를 분석했다. 일월오봉병을 포함하여 의례와 행사 현장을 장식한 채색 병풍의 종류와 특징을 규명하였으며, 병풍 제작과 의례의 준비 과정에 동원된 화원 및 공장(工匠)의 역할과 처우,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. 이러한 내용은 다른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귀한 정보로 저자가 이책에서 의궤 속에 흩어져 있는 화원과 장인들에 관한 많은 양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각적으로 분석한 점은 주목할만한 성과이다.

의궤는 오랜 시간에 걸쳐 다종다양한 형태로 많은 숫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방대함 속에서 종류별, 시기별로 중요한 의궤와 특징적인 반차도를 먼저 선별해 내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. 모든 의궤를 섭렵한 연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. 그런 면에서 저자가 가려 뽑은 의궤와 반차도(혹은 도설)를 눈여겨보아야 하며, 그에 대해 명료하게 짚어주는 해석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.

중국이나 일본에는 의궤와 비슷한 종류의 문헌을 찾기 어렵다. 한국만의 고유한 미술 문화를 잘 보여주는 의궤의 진가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만한 영문 서적이 없었던 시점에서 이 책은 너무나도 반가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. 자칫 어렵게 보이는 의궤의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친절할 안내로 시작하지만, 의궤의 정수를 조목조목 짚어가는 이 책의 깊이에 이르게 되면 그간 저자가 의궤 연구에 쏟은 공력의 무게가 저절로 느껴지는 책이다. 비록 영문으로 된 책이지만 의궤에 관심 있는 자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 필독서라고 생각한다.